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5. 6

저/역/사/회/탁/아/소/연/협/회

1995년 6월호 첫발행 92.5.25. 통권 31호 발행인 최현숙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5.6월호

<통권 31호>
95.6

저/역/사/회/탁/아/소/연/협/회

1995년 6월호 첫발행 92.5.25. 통권 31호 발행인 최현숙

짜 · 임 · 새

클리어 아이도우

일하며 생각하며 / 3

엄만 판 애들만 좋아하고 나만 미워해

새날을 여는 사람들 / 5

Go Baby로 가세요

건강하게 삽시다 / 9

여름에 잘 걸리는 아이들의 병

기획연재 / 15

일본대사관 앞, 수요일 12시

저상강연 / 20

부부의 사랑 가꾸기

작은 기획 / 23

여의도를 향해 하나, 두울, 세엣

한숙희

변미양

김철환

변미양

유은희

유승현



<표지사진>

그래, 통일세상을 꿈꾸며
맨 앞에서 힘차게 뛰어가
는 너희들의 모습이 자랑
스럽다. 언제나 그렇게 앞
서서 뛰어가렴.

통일마라톤대회(6/4)에서.

15



5

우리네 아이들

95.6월호

<통권 31호>

서사말독이 / 25

편집부

마지막 희망과 양심의 유린

글마당 / 27

[해송아기둥지]편

탁아소별곡

우리들의 목소리 / 29

차현숙

보육교사의 아이 키우기

신현희

늙은 학생의 하루

좋은 그림책 소개 / 34

신나는 페인트칠

소식과 소식 / 35

탁아게 풍향 / 36

벽록시장 / 38

편집부에서 / 39

23



■ 일하며 생각하며

엄만 딱 애들만 좋아하고 나만 미워해...

한숙희 /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회장

가끔씩 여섯살난 아들 녀석은 “치! 엄만 딱 애들만 좋아하고 나만 미워해.”하면서 투정을 부린다. 그 말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엄마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갈등을 주는지도 모르면서.

지금은 이렇게 자라버린 아들 녀석의 뉘이 되던 날(91.4.28), 서로에게 적응하느라 바빴던 신혼시절과, 날로 신기하기만 하던 아이와의 일년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시작한 일이 내 아이만을 키우는 일이 아닌 다른 여러 아이의 엄마일을 대신하는 놀이방이었다.

신나는 놀이방 선생님!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한 아이의 엄마에서 다른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직업을 가진 맞벌이 부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아이들과 함께 지난 시간이 벌써 오년이 되었다.

여자도 췌어서 자기 해보고 싶은 일을 해봐야 후회가 없다고 격려해주시던 칠순을 바라보는 시어머님의 배려에 감사드리고, 이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닌 보람있는 일로 시작하러던 남편의 충고어린 외조에도 고마움을 느끼면서, 내 아이만을 아닌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희망하는 엄마의 바람을 이해하고 딱 애들만 좋아하고 자기만 미워한다는 투정이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화길 바라면서 이 일을 한다.

가끔씩 여섯살난 아들 녀석은 “치! 엄만 딱 애들만 좋아하고 나만 미워해.”하면서 투정을 부린다. 그 말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엄마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갈등을 주는지도 모르면서.

멀리 미국에 가서도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주는 민재엄마. 과로로 탈장되어 입원했을 때 가족처럼 돌봐주던 간호사이신 태번엄마, 목욕탕에서 만나면 반갑게 등을 밀어주던 엄마들.

모두가 맞벌이 부부로서 바쁘고 어려움도 많지만 이 일을 하면서 만난 정다운 이웃이다.

일하는 엄마를 위해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을 하면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단순히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로써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활동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일은 사회복지 사업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함에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하고 연합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사회의 다른 일면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놀이방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시행착오도 여러번 겪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일하신 선배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이 환경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차원에서 부모와 정부, 시설이 함께 노력하고 개선하는 보육운동으로 사회에 확산되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생산적인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일에 함께 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국에서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람있는 사회복지사업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 새날을 여는 사람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를 찾아서

Go Baby로 가세요!

변미양 / 편집부, 본 회 재정간사

앰버서더호텔 옆 대학문화원 426호. '한국보육정보연구소'는 그 곳에 간판이 내걸려 있다.

“어서오세요.”

시스템 운영위원 정혜진 씨가 맞아주었다.

“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넓고 환해서 좋네요.”

지난 3월까지의 여성평화의 집 지하회의실을 연구소 공간으로 쓰고 있었는데 옮겨온 이 곳은 일단 밝은 햇빛이 내리 비추고, 방도 열 평은 되는 듯 좁은 공간이 아니어서 마음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일이 너무 많죠?”

빈 손으로 찾아갔지만 인사로 건네는 한마디다.

“그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전문지식도 없는 데다가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무엇보다 해야 할 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는 정혜진 씨의 말. 정혜진 씨는 지금 연구소 시스템 운영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데, 91학번으로 이제 본격적인 일터를 얻게 된 것이다. 우리 지탁연 식구들에게는 문화홍보 간사라는 이름으로 훨씬 익숙해있던 서정은 소장이 외근 중이어서 우선은 정혜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대단히 거창한 이름이다. 지난 10년간, 지탁연은 탁아운동을 해왔지만 이런 그럴 듯한 간판을 걸기는 처음인 것 같다. 우선은 뭔가 뿌듯해 오는 기분을 감출 수 없는데.

“연구소에선 어떤 일을 하는거죠?”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려운데요, 그간 경험 위주로만 해왔던 보육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와 정보를 조사, 정리해서 교류하는 것이죠. 보육의 질을 높이고 발전시



정보연구소 마련을 위해 서정은 소장(29세)은 시집갈 일천마저 과감히 내놓았다.

키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구요.”

지금 연구소에는 서정은, 정혜진(전 동근나라어린이집 자원활동가), 유정은(본 회 정책연구부원) 이상 3인의 상근 직원과 반상근을 하는 정현미 씨(전 동근나라어린이집 자원활동가) 등 네 사람이 일하고 있다. 5월 17일 천리안 통신 서비스를 개시해 연구소의 틀이 마련됐고, 6월 24일 정식으로 개소식을 앞두었지만 그간 치뤄내야 했던 작업과 어려움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아직은 자료 구비도 덜 되어 있는데다, 통신 서비스라는 활동 성격상 사람들의 발걸음도 많지 않아 겉으로는 한가해 보이지만 실상은 바쁜 시간에 약간의 틈을 타 그간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보육정보연구소가 제기되기 시작한 건 '94년 5월의 일이다. 지탁연 사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집행부에서 논의하면서 정보센터의 필요성은 부각되었고, 더 늦출 수 없는

사업임이 절실했다. 그 후 정보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서정은 전 간사로부터 추진되었다. 먼저 2개월은 정보센터 사업을 기획하고 조사하는 기간이었고, 11월부터는 정식으로 정보사업단을 구성했다. 이 때 나름대로의 운영방침을 정하고 사람과 자금을 모으는 실무로 당사자들은 꽤나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 그 후 서정은 씨와 뜻이 맞는 몇 사람(공교롭게도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이다)을 중심으로 정보사업단은 여성평화의 집 지하회의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때가 12월 6일이었다. 문서로 된 각종 자료 수집과 입력, 전화 조사가 3월까지의 주요 업무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휴일이 없었던 것은 물론, 9시 출근 11시 퇴근하는 격무에 시달렸던 건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시일이나 여건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열의와 호흡으로 사업은 차츰 모양새를 갖추어간다. 그 후 3월 26일 지금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고 터를 닦기 시작했다. 4월 마침내 BABY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5월 17일에 'Go Baby'라는 천리안 통신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밖에서의 불 일을 마치고 서정은 씨가 돌아왔다. 사무소 소장답게 안에서 일하는 사람 생각해서 약간의 간식거리도 사들고 온 모양이다. 한쪽에 자리한 회의 탁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음식도 먹어가며 지탁연 식구들이 궁금해 하는 여기 이 곳, 보육정보연구소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보았다.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 두려움도 많았고,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간에 흘린 땀이 결실인 듯 지금은 훨씬 여유있어 보인다.

조직 간사, 문화홍보부 간사, 영유아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 간사를 하는 동안 서정은 씨는 무엇보다 새로운 자료와 정보 입수의 절실함을 느꼈다고 한다. 93년 전국 6대 도시의 보육실태를 조사하면서 직접 부딪친 일이기도 했다. 정리된 문건이 없어 일을 할 때마다 새로 조사, 정리해야 하고 처리해야 하는 어령무를 겪으면서 정보를 체계화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특히나 한국 보육계에 있어 교육 이외에도 정책 등의 자료는 지략연만 가지고 있는 역사이며, 탁아에 관한 온갖 세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체적인 상담에 임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인식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만이 느끼는 갈급함은 아닐 것이며 보다 체계적으로 다수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훨씬 발전적인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마침 조직에서도 인식을 공유했고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 착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략연 내부에서도 벌써 4년 전부터 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겠다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춰 탁아운동도 방향을 재정립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은 시작되었지만 실무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자질구레한 행정적 실무에 미숙했고, 운영 능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에 대한 새로운 사고 인식이 요구되었다. 보육이란 워낙 광범위한 영역인데다, 고민이 집중된 적이 없어 어느 곳에서도 정보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붙여진 이름이 '맨딩'이다.

맨딩? 이 말은 '맨 땅에 헤딩'의 준말이다. 자력갱생을 외치며 일단 부딪치고 봤던 것이다.

재정 마련의 어려움(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보 개발의 어려움(정보처가 다양하지 않은 게 가장 컸으며, 행정기관의 비협조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어려웠다) 등은 앞으로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그러나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는 영아보육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방과 후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의 이용과 실재를 조사·연구·개발한다는 4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막혔던 통로에 대한 분출 욕구가 다양하고 긍정적으로 표출되자 보람을 느끼면서도 얼굴을 볼 수 없는 다수의 대상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 교사들의 관심과 후원에서 큰 힘을 얻는다는 우리의 보육정보연구소 일꾼들. 아직은 컴퓨터가 일터와 생활에서 익숙치 않은 우리 지략연 교사들이 더 많이



앞줄 우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서 소장, 유정은, 정현미, 정혜진 보육정보연구소 식구들

천리안 제공 메뉴 안내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BABY)

한국보육정보연구소
(02) 268-3954, 271-1547-8

[보육시설 정보]

- #1. 전국어린이집, 놀이방 찾아가기
- 2. 어린이집, 놀이방 선택은 이렇게

[보육행정 / 보육단체]

- 11. 보육행정
- 12. 보육 단체 / 기관
- 13. 보건소 / 놀이감 / 서점 / 도서관 / 비디오 / 나들이 갈곳 / 인형극단

[신문기사 / 참고문헌 / 자료실]

- 21. 신문기사
- #22. 참고문헌
- 23. 자료실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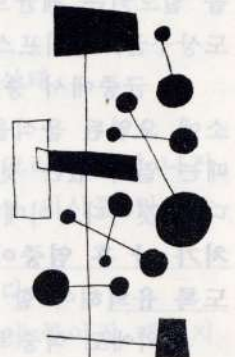
- @ 31. 물어보고 싶어요
- @ 32. 행사 및 교육
- @ 33. 구인/구직/자원봉사자
- @ 34. 재미난 이야기
- @ 35. 육아토론실
- @ 36.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안내
- @ 37. 서비스 안내

이 정보는 분당 50원입니다. (단, #표시는 100원/분, @표시는 15원/분)
도움말(H) 직접이동 (OO) 초기메뉴(T) 기타(Z) 접속종료(X)BYE
선택)

★하이텔 제공 메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략연 교사들의 통신 소모임을 마련해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나누어지기를 꿈꾼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제 6월 24일 오후 3시 개소식을 하면 '한국보육정보연구소'가 제대로 뜻을 다는 셈인데, 이 날 빈 틈 없이 자리를 메워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것들도 물어보구요!)



■ 건강하게 삽시다

여름에 잘 걸리는 아이들의 병

아이들이 여름에 걸리는 병은 참 많다. 여름이라고 보통 걸릴 수 있는 병이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다가 곤충다습하고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름에 아이들이 걸리기 쉬운 병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해 보았다.

김철환
인제대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식중독>

여름철에 가장 문제가 되고 중요한 질병을 들라고 한다면 식중독을 들 수 있다. 식중독이란 음식물이 세균이나 독성화학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아니면 음식물 자체에 독성이 있을 때 발생하는 병이다. 보통 어떤 음식물을 먹은 사람들이 설사,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복통 등을 호소하면 식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식중독은 대개 세균에 의해 식품이 오염되었을 때에 일어난다. 세균의 독소가 몸에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세균이 장내에서 번식하여 생길 수도 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는 대장균 중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특별한 대장균을 비롯하여, 포도상구균,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예시니아, 캄필로박터 등 수십 종이 있다.

이 균중에서 증상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것은 포도상구균이다. 포도상구균이 만든 독소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1~6시간 사이에 복통, 구역질, 구토, 설사를 일으킨다. 이때는 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포도상구균독소는 음식을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음식을 끓여 먹는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 이 균은 **손에 상처가 난 후 염증이 생겼을 때 잘 번식하기 때문에 상처난 손이 음식과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식중독에는 장티푸스, 살모넬라 식중독, 점액과 혈액이 섞인 대변이 나오는

**식중독은 1주일내에 저절로 낫지만
식중독으로 인한 심한 탈수는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어.
후진국 어린이 주요 사망요인이 바로 식중독.**

특이한 질환인 이질, 약수터 물로 전파되는 예시니아 등이 있다. 물론 콜레라도 있지만 콜레라는 방역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희귀한 병이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식중독은 균의 종류나 사람의 상태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 짧으면 하루, 오래가면 1주일내에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식중독으로 인한 탈수가 문제가 된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어릴수록 신체에 보유하고 있는 수분과 전해질의 양이 적기 때문에 쉽게 탈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심한 탈수는 쇼크를 일으키는 등 위험한 증상이다. 후진국 어린이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바로 식중독인 사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이가 2시간이 멀다 하고 설사를 한다면 누구나 병원에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설사는 하루 2-3번 하고, 먹는 것도 그런대로 잘 먹고, 또 많이 아픈 것 같지도 않다면 이때는 병원에 갈 것인지, 혹은 집에서 치료할 것인지 애매할 것이다. 물론 가족주치의로 알고 지내는 의사가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또 전화로도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주치의가 있는 사람은 몇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이의 탈수를 판단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좋다. 다음에 해당되면 빨리 의사를 만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 설명하는 탈수의 치료법을 이용하라.

평상시 아이의 체중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설사하는 아이의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탈수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평상시 체중의 3% 체중 감소를 경증의 탈수, 6%의 탈수를 중증도의 체중감소, 그리고 9% 이상을 중증의 탈수라고 한다. 6%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고, 입원을 요할 때가 많다.

이외에 심한 탈수의 증거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입술과 입안, 그리고 눈의 점막이 현저하게 건조되어 있는 상태
-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거나 얼룩져 보이는 상태
- 최근 12시간 이상 소변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
- 아이가 흥분이 되어 있거나, 자꾸 졸리는 등 의식에 문제가 있는 상태

위의 탈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빨리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열이 나거나 1주일 이상 설사를 비롯한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를 만나야 한다.

그러나 가벼운 설사인 경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아이를 돌보면 된다.

우선 밥이나 우유, 과자 등의 음식물은 설사를 비롯한 소화기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주어서는 않된다. 설사 초기에 평소 먹던 것을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힘이 없을까봐, 설사를 하는데도 계속 먹던 것을 주는 것은 설사를 오래 끌어 결과적으로 아이를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대신 설사를 치료하는 용액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설사를 치료하는 용액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만들면 된다.

(끓인 물 1L + 설탕 1숟갈 + 소금 3/4 찻숟갈 + 주스 1컵)

이 정도면 훌륭한 '먹는 링게르'가 될 수 있다. 설사할 때 설사를 멈추는 약을 먹고, 링게르를 맞는 것이 좋은 치료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먹는 링게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요즈음 많이 나와 있는 이온음료도 가벼운 탈수에는 좋은 음료이다. 이온음료의 뚜껑을 열고 실온에서 30분이 지난 후 자주 먹이면 된다.

설사를 한다고 무조건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건강상식이다. 설사는 심하지 않지만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배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맛있는 죽을 먹이는 것이 좋다. 이때 밥, 우유, 빵, 과일, 치즈 등의 음식을 설사가 좋아질 때까지 먹이지 말아야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항상 끓인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약수물도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예시니아라는 균은 찬 약수에서 잘 자라고 아이들에게 심각한 장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의 냄새나 맛, 그리고 색깔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하지 말고 꼭 버려야 할 것이다. 냉장고를 이용하여 냉장보관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냉장고를 너무 과신하지는 말아야 한다.

유행성 각결막염, 처음 1주일만 증상이 심하다가 1주일만 지나면 호전되지만 빨갛게 된 눈은 3주 정도 지속. 꾸준히 안약을 넣으면서 기다리면...

〈빨갛게 된 눈〉

여름에 수영장을 다녀온 아이의 눈이 빨갛게 되었다면 온 집안과 그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비상이 걸릴 것이다. 삼복더위에 수영장에 가면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대고 이런 곳에서 수영하면 결막염에 걸리기 십상이다. 여름에 눈이 빨개지면 아폴로눈병이라고 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유행성 각결막염이다. 이 병은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옮기는데, 여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사시사철 생길 수 있는 병이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후 증상이 생길 때까지의 기간(잠복기)이 일주일 정도이다. 초기에는 눈이 빨갛게 되면서 눈곱이 끼고, 눈에 이물질이 낀 것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처음에는 한쪽 눈에 생기지만 보통은 다른 쪽 눈에도 퍼지게 된다. 처음 1주일동안은 증상이 심하다가 1주일만 지나면 증상은 좋아지지만 빨갛게 된 눈은 3주 정도 간다.

치료로特效약은 없지만, 보통 항생제 안약을 넣으면서 2차 세균감염을 예방하면 저절로 잘 낫는다. 이병과 비슷한 아폴로눈병은 증상은 매우 심하지만 1주일이면 완전히

귀가 아프다고 귀에서 냄새가 나는 짓물이 나오면 지체 말고

의사에게 보여야...

특히 열이 나는 경우는 중이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낮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스럽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1주일만 지나면 증상은 별로 없는데 빨갛게 눈은 좋아지지 않아서 가족들이 초조해지고, 다니는 병원도 바꾸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안약을 넣으면서 기다리는 것이면 곧 좋아진다.

아이의 눈이 빨갛게 된 것이 좋아질 때까지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같이 사는 가족들은 아이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아이가 쓰는 수건을 따로 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아이와 접촉한 사람은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얼굴을 만지는 일을 절대 삼가해야 할 것이다.

〈물놀이 귀병〉

대부분의 아이들은 물을 만나면 뛰어들지 않고서는 못배긴다. 그리고 물에서 놀다보면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꼭 물놀이를 하지 않더라도 목욕하면서도 귀에는 물이 잘 들어간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솜으로 귀를 막아도 보지만 오히려 스며든 물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인 경우에는 귀에 물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나중에 자연히 빠져나오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전에 귀병을 앓았거나 특히 중이염을 앓고 있어 고막에 구멍이 난 경우에는 반드시 귀마개를 하도록 해야 한다. 요즈음 귀구멍에 꼭 맞으면서 부드러운 고무귀마개가 나와 있으니 이를 사용하면 좋다.

아이가 귀가 아프다고 귀에서 냄새가 나는 짓물이 나오면 지체 말고 의사에게 데려가야 한다. 특히 열이 나는 경우는 중이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이비인후과에 가도 되지만 다니던 소아과 의사나 가정의학과 의사가 있다면 이 분들도 충분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아이가 수영장을 다녀온 후 귀가 아픈 것은 대개 외이도염 때문이다. 외이도염은 외이도속에 있는 귀에지가 물에 불어서 귀가 막히니 손으로 귀를 후벼 파서 생긴 상처에 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절대 귀를 손으로 후비거나, 집에서 솜으로 무리하게 귀속을 닦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들은 외이도염에 걸린 아이를 치료할 때 외이도를 깨끗이 소독해주고, 초기에는 필요한 항생제를 먹게 하거나, 진통소염제를 같이 쓰기도 한다. 아이들은 귀가 아프거나 가렵기 때문에 치료중에도 자꾸 귀속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는데, 엄마는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면서 아이가 귀를 후비지 않도록 잘 교육시키고 손톱을 짧게 깎아주면 증상은 의외로 빨리 좋아질 것이다.

아이들은 30분이라도 직사광선에 계속 노출되면 일광화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해서 예방해야 한다.

〈피부 화상〉

태양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일광화상이 일어나는데 특히 어릴수록 잘 일어난다. 햇볕에 오래 노출된 후 아이가 피부가 따갑다고 하는 경우, 아픈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고, 물집이 잡혔다면 이는 틀림없는 일광화상일 것이다. 일광화상은 매우 고통스럽다. 아이는 잠에 들지 못하고 계속 칭얼댄 것이다. 아이들은 30분이라도 직사광선에 계속 노출되면 일광화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해서 예방해야 한다.

일단 일광화상이 생겼다면 가장 좋은 치료법은 얼음찜질이다. 얼음을 비닐봉지에 넣든지, 아니면 얼음물에 수건을 담근 후 계속 아픈 부위에 대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증상도 쉽게 좋아지고, 그 자체가 치유를 도와준다. 얼음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찬물을 이용하면 된다. 얼음찜질을 하는 시간은 보통 6시간 정도이지만 12시간 이상까지 오래해도 좋다. 어떤 사람은 화상 연고를 바르고, 붕대로 싸주는 데 초기에 이렇게 치료하면 안된다. 타일레놀이나 부루펜과 같은 진통소염제를 먹어도 도움이 될 수 있고, 12시간 내지 24시간이 지난 후 칼라민로션과 같은 것을 발라줘도 좋겠다.

일광화상은 물집이 크게 잡히는 정도가 아니면 집에서 얼음찜질만으로도 쉽게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기타 피부문제〉

- 벌레 문 자리의 합병증

모기를 비롯한 벌레가 문 자리는 저절로 낫기 마련이다. 그런데 벌레가 물 때 균이 같이 들어가거나, 혹은 벌레 문 자리가 가렵다고 균의 온상인 손톱으로 긁으면 굼기 쉽다. 그래서 아이의 손톱은 항상 짧게 깎아 주고 청결히 하는 것이 많은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벌레 문 자리가 하루가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빨갛게 부어오른다면 이는 세균 감염이 되어 굼기 시작한다고 봐도 된다. 이 때는 항생제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경우가 많다. 후시딘과 같은 항생제 연고는 피부의 아주 겉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굼힌 부위와 같은 곳에는 효과가 좋지만, 굼는 것과 같이 피부 깊은 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굼은 상태에 따라서는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빨리 짜서 빼놓(고름을 빼내는 것)을 해야 한다. 선불리 항생제를 쓰는 것은 오히려 오랫동안 굼도록 만들 수 있다. 또 아이가 많이 아파하는 초기에는 얼음찜질을 해야 한다. 이 때는 진통소염제도 같이 쓴다. 그리고 항생제를 쓰지

**벌레 물린 자리가 굼으면 빨리 고름을 빼내야.
땀띠는 전통적으로 몸을 시원하게 하면서 분을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

않고 빨리 굼게 하면서 굼는 범위를 줄일 때는 뜨거운 찜질을 해야 한다.

이렇게 벌레 물린 자리가 굼을 때 치료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잘 알고 처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많이 아파하거나 상처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지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 땀띠(한진, 汗疹)

옛 어른들은 여름철에 생기는 땀띠 정도는 쉽게 진단하고 또 치료하신 것 같은데 요즘 주부 중에 땀띠를 진단하고 처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땀띠는 더운 여름 땀이 계속 나면서 땀샘이 막혀서 생기는 피부병으로, 고온다습해서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 노출되면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다. 어린이가 계속 열이 나는 경우나 침대에 오래 누워 생활하는 경우에 잘 생긴다. 땀띠는 보통 좁쌀같이 생긴 것이 여러개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목, 겨드랑이, 등, 엉덩이에 잘 생긴다. 자세히 보면 작고 불그스름한 좁쌀같이 생긴 반진의 중앙으로 아주 조그마한 수포(물집)가 보이는 수도 있다. 증상은 약간 따가우면서 가려운 것이 특징이다.

땀띠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분을 발라주는 것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치료법이며, 이런 치료법이 아직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밖에도 스테로이드연고를 바르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상으로 여름에 잘 생길 수 있는 병 몇가지를 적어 보았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올바른 건강상식을 키우는 것은 특히 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선생님의 책임이다. 흔한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방법과 치료법을 익힐 수 있도록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이들도 평소 힘차게 뛰어놀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균형된 식사를 하는 아이는 웬만한 환경이면 잘 적응하고 질병도 쉽게 이겨낸다. 어릴 때부터 위생관념을 갖도록 해주고, 건강을 키우는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다.

■ 기획연재



일본대사관 앞, 수요일 12시

변미양 / 편집부, 본 회 재정간사

“오늘 더워서 무척 고생하셨죠? 이제부터 더 더워질텐데 큰 일이네요.”

“응, 오늘도 덥긴 더웠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더위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

식당에 앉아 땀을 닦으며 할머니와 나는 첫 대화였다. 밖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제야 때를 만났다는 듯 햇볕이 짙었다. 그나마 일본대사관 맞은 편 공사장의 그늘 밑에서 1시간의 시위를 끝내고 돌아온 길이었다. 하긴 오늘로 169차 수요시위를 나온 할머니들에게는 오늘같은 더위쯤이야 어디 더위라 치겠는가. 비라도 오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일 터.

정·신·대

나라를 빼앗긴 시대의 꽃다운 처녀들은 그렇게 그들의 순정과 청춘을 짓밟혀야 했고, 그 이름의 망령에 덧씌워져 한평생을 살아왔다.

너무도 부당했고 서러운 일이었으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네들의 삶이었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매주 수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치지 않고 계속 되어온 할머니들의 시위장소 일본대사관을 찾아가면서 머리 속에는 적지않은 혼란이 있었다. 이미 화면이나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그분들의 모습이었지만 직접 뵙기에는 왠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편에는 그 많은 시련을 외로이 감당해오신 분들을 외면해

왔던 죄송함도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못본 채 피하고 싶다는 비겁함도 있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일본대사관을 찾아 바쁘게 옮겨지고 있었다. 어차피 이 곳에서 할머니들을 만나고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내 발로 내쳐왔던 걸음이니 어찌 그대로 돌아가겠는가.

경복궁 바로 앞 남산을 바라보며 자리잡은 붉은 벽돌의 일본대사관 건물의 위용은 너무도 당당했다. 그리고 주변에는 우리의 전경들이 한시라도 불온세력의 난동이 있을까 철저히 지켜주고 있었다. 대사관 정문 앞, 전경차에 가려진 우리 할머니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할머니들은 모두 일곱 분이나 될까. 시위에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과 여러 단체사람들, 정대협 실무자 등 채 이십명이 안되는 것 같았다. 앞에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프랭카드, 손에는 와타나베의 망언을 규탄하며 진상을 규명하라는 피켓. 할머니들의 시위는 그 쟁쟁한 햇볕과 무심한 전경들의 경비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주의깊게 듣거나 보지 않으면 한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 너무도 힘겹게 외치고 계시는 우리 할머니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힘껏 외치고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지요.”

앞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정대협 실무자 임정덕 씨는 뜨거운 햇볕을 바로 맞으며 할머니들과 사람들 앞에서 선창했다.

“일본정부는 망언을 즉각 사죄하고, 위안부 범죄를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정신대, 이 말이 우리들 사이에서 막힘없이 오가게 된 것은 고작 88년 이후였다.

당시 이대 영문과 교수였던 윤정옥 교수를 중심으로 소수 여성학자들의 연구활동과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활동이 정대협을 발족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제 식민지 지배와 분단으로 인한 민족수난사 속에서 고통당한 여성들의 아픔에 대해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외화 획득의 명분하에 부상된 관광산업으로 일본인들의 한국여성에 대한 성적 침탈인 ‘기생관광 정책’이 자행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위안부’와 ‘기

생관광'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관지으며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다. 윤정옥 교수는 정신대에 끌려 가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들이 겪었던 일제의 참혹함을 지켜 보아야 했던 동시대의 여성이었다.

이후 1990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한일 양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정신대문제에 대한 여성운동단체들의 조직적 공동대응이 마련되기 시작한다.

90년 11월 16일, 36개 여성운동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총체적 실상을 규명하고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투쟁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를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들은 정신대를 더 이상 역사책 속의 잊혀진 단어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아직도 치욕적인 삶의 무게를 힘겹게 짊어지고 있는 산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사실을 밝히고 등록하신 할머니들은 모두 162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대협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뜻을 밝히신 할머니들은 60여명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줄잡아 20만이 넘는 젊은 여성들이 정신대에 끌려갔으니 지금 생존해계신 분들을 정확히 통계낼 수는 없지만 아마도 상당수의 분들이 살아계실 것이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사세요?”

“나-, 나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어. 작년 11월에 등촌동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든.”

“그럼 혼자 사세요?”

“아니, 손주가 하나 있지. 현철이라고 지금 18살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지. 얼마나 컸는지 콩나물같이 쑥쑥 자라더니만 이제 어른이 다 되었어. 저 할머니한테 물어봐, 얼마나 잘 생겼다고.”

할머니는 자녀분은 안계시고 어찌된 사정인지 조카의 아들을 3살적부터 맡아 키우셨다고 한다. 아침마다 대견스럽게 자란 손주의 도시락을 싸는 게 이 할머니의 큰 기쁨이신 것 같았다.

“할머니 고향은 어디신데요?”

“고향?”

“....”

“나 담배피도 되냐?” 담배를 한 대 꺼내 무시고, 할머니는 수줍은 웃음을 입가에 지으시며 오래 전 이야기를 천천히 더듬으셨다.

..... 고향은 저어기 진주지, 거기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산골짜기 시골이었어. 나는 큰딸인데 내 밑으로 여동생만 여덟이야, 결국 내가 정신대 끌려갔다 해방돼 돌아오니 막내 남동생이 하나 생겼더군.....

목화며 나물만 뜯어먹고 살았다는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목화가 손가락만 해지면 그 단맛이 참 좋았다는 가난한 날의 회상이 웃음 속에 흘러나오건만....

내 나이 그때 우리 나이로 열여섯이었지. 공장에서 기술도 배워주고, 일 시킨다고 하며 데려가더군. 그래서 간 곳이 중국이야. 그 천리를 가서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일들을 겪고 왔지.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는지.....

나 지금은 이런 얘기 그만 할래.

박필기 할머니는 들고 계시던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내뿜으며 웃으셨다. 눈빛은 물기가 젖어있었지만, 지금 연세가 일흔이시란다. 삼 년을 모진 진탕 속에서 짓밟히며 꽃다운 청춘을 보내신 거다. 진달래 따먹고, 목화 따먹던 그 소녀가.....



손자와 함께 사신다는 박필기 할머니(70세)

하긴 기껏 힘들게 시위를 마치고 이제 사 에어컨도 돌아가는 시원한 식당에서 한숨 돌리려고 하던 참 아닌가. 아무리 마음에 단련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문득 문득 그날이 떠오르면 자지러지게 소름 끼치며 눈물이 나는데 그 생각을 또 해야 하다니, 너무 잔인한 일인게라.

일흔이 넘으신 나이에 고등학생 손주 도 시락 싸주시며 일일이 세끼 챙겨 드시기가 쉬운 일은 아닐 터. 그러고 지금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더운 물도 나오는 아파트에 사신다니 다행이지만 그전까지는 어떻게 사셨을까?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월 20만원의 생활비 보조금과 영구임대 아파트 우선 분양이라는 시책이 주어진 것도 고작 1,2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말이다.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의 활동에 힘입어 무심하기만 했던 정부로부터 겨우 얻어낸 결과였다. 생활비에는 턱도 없는 액수인 보조금도 처음에는 15만원을 받다가 인상된 지 얼마 안된다. 그러니 좋게 생각하면 그 전까지의 쪼들리던 데서 한 발 나아진 것이지만, 용기를 내어 명백히 일본정부의 과오를 밝히고 책임 있는 대처를 해달라고 외치는데도 이 모양이니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긴 싸움인것이다.

“○○○할머니는 왜 오늘 안왔나?”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요.”

“입원한 그 할머니는 좀 차도가 있대?”

“아직 결과가 안나왔어요. 그래도 좀 덜하신 것 같아요.”

오고가는 이야기들은 그리 신바람 날 게 없다. 누가 아프다는 말 아니면 누가 입원했다는 말이다. 벌써 연세가 일흔이 넘어가시니 부고가 전해지는 일도 흔하다. 93년부터 일 년 반 되는 동안 벌써 열분이나 돌아가셨다고 한다. 돌아가시기 전 그동안 받으셨던 고

통들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으며 사는 데나마 걱정이 없으셔야 할 텐데, 할머니들은 오늘도 담배값, 반찬값 걱정에 마음 조이며 택시 한 번 마음놓고 타지 못한다.

식사는 맛있게 마쳤다. 모두 시장하기도 했고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일하는 이들과 모였으니 밥맛도 더했으리라. 이제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지지만 이 끈질긴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할 지 모르겠다. 그래도 최장기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수요집회는 일생의 마지막 신념을 것 듯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제 서로 헤어져야 하는데 할머니들은 그리 서두르는 기색이 없어 보인다. 대부분 혼자 살고 계시니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게 뭐 그리 급하겠는가.

할머니들을 뵈러 오면서 망설임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들을 뵈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밝고 온화한 얼굴들이었다.

늘 눈물 지으시지 않을까, 늘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 나조차도 그 설움에 눌러 질식해 버리지 않을까?

그렇지만 할머니들은 철없는 나를 보고 웃어주신다. 자신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마냥 흘러 넘쳐도 지금 우리들을 보고는 웃어주신다. 이제 그 분들의 지친 목소리에 힘을 드려야겠다. 그 외침이 울려 퍼져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외쳐야겠다.

정대협이 주관하는 할머니들의 수요집회는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취해지는 날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대협의 활동과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다음호에도 이어집니다.



■ 지상강연 - '올바른 부부관계'

부부의 사랑 가꾸기

유은희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번 지상강연은 다음 호에 걸쳐 올바른 부부관계에 대한 재조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호는 올바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결혼에 대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결혼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두분이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서로 끌려서', '첫눈에 반해서', '서로가 잘 통해서', '성품이 착해서' 등의 낭만적인 사랑의 형태로 표현한다. 그러나 부부들의 결혼동기를 심층적으로 들어가보면 '결혼은 성인이 되면 당연히 하는 것인데다 부모님이 결혼하기를 원하시니까 하였다.' 식의 관습 순응형에서 부터, 외로워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 지금의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부부들의 결혼동기는 다양하지만 결혼한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은 부부는 서로 신뢰하며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의식, 무의식적으로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결혼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뛰어나온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서 부터 시댁(처가)과의 관계, 생활비 관리, 방의 정리정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부부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생각지 않았던 배우자의 단점을 발견하면서 부부들은 결혼에 대해 실망하고 후회를 하기 조차 한다.

흔히 부부들이 결혼생활에서의 여러 문제에 부딪히면서 내리는 결론은 근본적으로 부부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혼 전에 낭만적 사랑보다는 다른 현실적 이유에서 결혼을 했던 부부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결과로서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결혼 당시 열정적인 사랑을 느끼면서 결혼한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과연 결혼 전에 사랑이 없었으면 결혼 후에도 계속 존재하지 않는가? 또 사랑이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퇴색해 버리는 것인가?

그러나 결혼생활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생기있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부부들

**“부부간의 사랑을 강화시키는 작업은
부부가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나간다는
의식,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업이어야 한다”**



자연속의 웨딩마치

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사랑을 단지 느낌으로서만 설명하려 한다. 일단 사랑을 하면 그 느낌을 마치 은행 계좌에 정기예금해둔 것처럼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존재하며 내가 쓰고 싶을 때마다 찾아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만 접근할 때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모해버린다.

결혼생활을 몇년하다 보면 부부들은 결혼생활에서 안정감은 느끼지만 배우자에게서 어떤 자극도 느낄 수 없고 지루하다는 것을 호소해온다. 그렇다고 배우자가 특별히 미운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런 하소연을 했던 어느 부부들의 결혼생활을 잠시 들여다보자. 이들은 결혼한 지 5년이 된 부부로서 결혼 후 얼마 안되어 아이를 낳았고 그후 몇년동안 부인은 아이를 키우느라 남편은 직장생활로 모두 각기 바쁘게 지냈다. 어쩌다 부부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몇 시간씩 함께 보고 주말이면 가끔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거나 좀더 좋은 살림기구나 아이들 옷 등을 함께 사러가는 것 등으로 시간을 보내었다. 또 남편은 주주의 저녁시간 중 자유시간이 생기면 직장동료나 학교때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결국 이들은 각자의 주어진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했지만 부부간의 관계, 사랑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히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는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두분이 만난 이후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가 언제였느냐고 물으면 많은 부부들이 신혼초나 연애시절을 들곤 한다.

우리는 학교 신문사 씨클에서 만났어요. 선후배사이였죠. 우리는 신문을 만드느라 기사를 취재하러 함께 가고, 편집작업이 늦어지면 함께 밤 늦도록 작업도 같이 했어요. 또 시간이 나면 등산도 같이 가곤 했었죠. 우린 씨클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이였어요.

위의 사례에서 동일한 두 사람의 관계를 5년 전과 현재로 비교해 보면 두 사람만의 관계를 위해 투자한 시간의 질과 양에서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행복했던 때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작업이 많았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함께 했던 작업은 주로 텔레비전을 같이 보거나 물건을 사는 등이다. 이러한 작업은 함께 했지만 결국은 텔레비전이나 물건에서 나오는 자극을 제각기 받아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지극히 수동적인

**중요한 것은 두사람이 함께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작업.**

**진정으로 부부만의 사랑을 강화시키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20분만이라도 두사람만의 시간을 갖기를...**

즐거움인 것이다. 반면에 연애시절에 함께 했던 작업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작업을 통해 즐거움이 생겨날 수 있었다.

부부간의 사랑을 강화시키는 작업은 부부가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나간다는 것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업이어야 한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부부들은 모두 지성적이었지만 부부관계를 성숙시키는 데는 미숙한 점을 나타냈었다. 두 사람 모두 결혼에서의 책임과 의무, 결혼의 의미 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지적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두 사랑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다 보면 어느듯 두 사람의 대화는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자기주장이나 패배로 끝나기가 일쑤였다.

부부간의 사랑이 오래동안 활기있게 지속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부문제 상담을 온 부부들에게 ‘결혼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부부들은 흔히 ‘부인에게 선물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 ‘함께 여행을 가겠다’ 등으로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사람이 함께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저녁식사후 함께 산보를 나가거나 일주일에 두번씩 탁구치기 등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어야 한다. 특히 탁구치기 같은 운동은 두사람이 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많은 교감을 주고 받기 때문에 단지 두사람이 텔레비전을 함께 보는 것과는 상호작용의 질면에서 많이 다르다. 특히 자녀가 2,3세로 어린 경우에는 부부만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부만의 사랑을 강화시키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20분만이라도 두사람만의 시간을 갖기를 권하고 싶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는 집안의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두사람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어야 그 시간이 부부간의 사랑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부부가 진정으로 성숙된 사랑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낭만적인 사랑의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을 단지 느껴지는 에로틱한 감정의 차원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퇴색해갈 수 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만들기 위해 그만큼 부부만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작은 기획 - 자연과 어린이(4)

여의도를 향해 하나, 둘, 셋

- '여의도 광장'을 찾아서 -

유승현 / 은누리어린이집

사방이 고층빌딩과 아파트숲,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장점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과 즐겨찾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여의도.

먼데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서 목숨 걸고 가야하는 놀이터나 동네 국민학교 운동장 구석에서 기를 못펴던 우리에게, 그래서 버스 한 번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 드넓은 운동장(비록 아스팔트지만)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다.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하여 10시 30분에 출발, 30분쯤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다. 광장에는 한켠에 일렬로 자전거 대여점이 있는데, 화장실과 가깝게 있고 유아용 자전거가 많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평일에 가면 거의 아무도 없어 아이들이 자유대로를 마음껏 휘젓고 다닐 수 있다(와! 이 쾌감!). 자전거 외에 롤러스케이트와 놀이자동차도 있다.

그늘진 풀밭에서 점심을 먹고 고수부지로 향하는 한결음 한결음. 거기엔 또 다른 풍경이 아이들의 환호를 기다리고 있다.

“와~ 바다다! 대빵 크다!”

강줄기를 따라 자연학습장, 야외 수영장, 놀이터가 한 눈에 들어온다.

자연학습장을 주로 견학하려면 봄, 여름에 가야 하는데, 온갖 종류의 식물과 농산물들이 자라고 있다. 원두막이 한쪽에 지어져 있지만 출입금지 팻말이 있어 무척 아쉽다.

그 옆으로 있는 야외 수영장은 한여름 우리 아이들의 단골 아지트다. 이왕이면 아지트가 수풀 우거진 골짜기의 계곡이라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이 곳 수영장은 깊이가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고, 3~6세가



함께 놀 수 있는 야트막한 곳도 있다. 어른, 아이 모두 수영복과 수영모자를 입어야만 풀안에 들어갈 수 있다.(빠리릭~X시 퇴장당함)

놀이터를 반드시 가야 한다고 한다면 별이 없는 흐린 날을 선택해야 한다. 그늘진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노는 것이 아니라 고역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는 인공적인 곳 투성이라 소개하기가 다소 망설여졌지만 이런 것 역시 우리의 현실 상황이 아니겠는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겠다!



여 의 도 광 장

소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교통편/ 일반버스 3, 9, 30, 30-1, 33-1, 48, 53, 54, 112, 119, 120, 123, 133-2, 145, 326.

좌석버스 631, 119, 72-1 등

시설이용료/ 수영장 5세이상 1,000원(변동가능)

자전거 대여료 시간당 1,500원

■ 시사말뚫이

마지막 희망과 양심의 유린

편집부

지난 6월 6일 오전 8시.
짖다만 아침밥과 주인 잃은 신발.
유린당한 명동성당의 흔적이다.

군사독재 권력까지도 감히 넘보지 못하고 지킬 수밖에 없었던 성역 -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한국통신노조 간부 13명 전원을 강제연행했다. 법 앞에서는 종교시설도 결코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 시대의 마지막 처녀지를 유린하고 만 것이다. 국가전복음모자를 비호한다는 억지울가미를 씌워 과잉대응을 감행한 현정부는 자신들의 만행을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한국통신노조는 실제로 법이 허용하고 있는 파업절차조차 밟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며, 준법투쟁을 벌이면서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를 해왔었다. 또한 단체활동을 유보하고 때마다 협상을 요청해왔었다. 그리고 한편 명동성당측에서는 원만한 협상을 위해 중재노력에 주력해오던 중이었다.

그런데 왜?

명동성당 97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행된 공권력 투입은 충격을 떠나 배신감까지 들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민정부라 스스로 자처하는 이 정부가, 그리고 87년 6월항쟁이 이 정부를 탄생하게 했으며 스스로 민주화의 주역이라 평가하면서 잊었던 말인가? 그걸? 6월항쟁을 이끌어온 그 성역을 정녕 잊었던 말인가?

그랬었다.

숨막힐 듯한 폭압통정 아래에서도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피난처로 소중히 간직해온 곳이다. 민주화의 상징이요, 가난한 이들이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 - 명동성당의 유린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희망과 양심을 짓밟은 행위이다. 이에 김수환 추기

명동성당 97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행된 공권력 투입은 충격을 떠나 배신감까지 들게 한다.
87년 6월항쟁이 이 정부를 탄생하게 했으며 6월항쟁을 이끌어온 그 성역을 정녕 잊었던 말인가?

경은 12일 명동성당 낮미사 강론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명동성당을 침범한 게 아니라 시련과 고통을 인내하며 지켜온 도덕적인 힘을 짓밟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구시대적인 노동악법을 동원해 휘두른 오만의 감작쇼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참으로 끝도 없다. 그러나 이젠 하한 망각하진 않겠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했던가?

비도덕적인 권력남용의 손 끝에 비틀려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는 것을 말이다. 역사는 남용을 그래도 보고있진 않는다는 것도 말이다.

한치레고림판

박재동



■ 글마당

탁 아 소 별 곡

[해송아기동지] 편

이야기 하나. 비가 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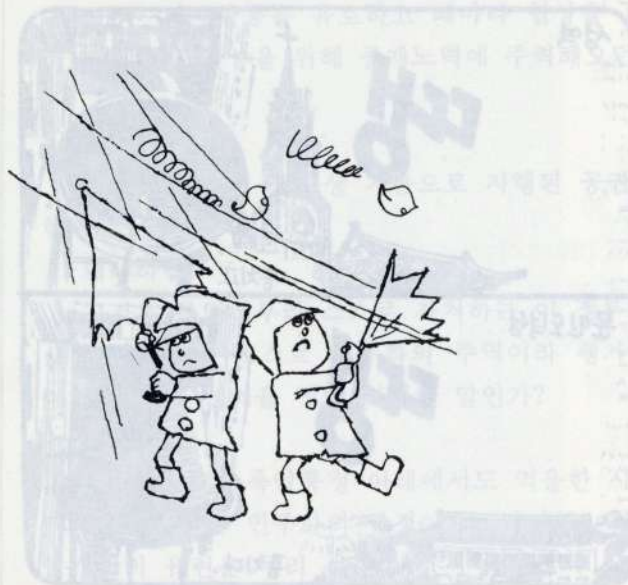
비가 오는 어느날, 마루문을 열고 비가 내리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보고 있었다.

선생님 : 친구들아, 비가 오면 새들은 어디로 갈까?

하 나 : 새들이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려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해요.

다 은 : 나는요, 우산을 씌워줄래요.

강 식 : 나는요, 아빠랑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새들한테 우산 씌워줄래요.



이야기 두들. 너무 뜨거워.

한 아이가 열이 나고 많이 아파 한쪽에 누워있었다.

형 섭 : 진선이 왜 그래요?

선생님 : 응, 많이 아프대... 이리 와서 머리 좀 만져봐.

형 섭 : 선생님, 진선이 가스케인지에 데었어요?

선생님 : ??... 아아니..

형 섭 : 그런 날에 데었어요?

선생님 : ???!



이야기 셋. 땀이어요?

날씨가 더워 땀을 뻘뻘 흘리며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 창민이가 동생인 창명의 축축한 머리를 만지고 나서

창민이 : 선생님, 선생님 있잖아요. 누가 창명이 머리에 오준쌌대요!

선생님 : ???

■ 우리들의 목소리

보육교사의 아이 키우기

차현숙 / 전 해송아기둥지 교사

나는 이제 막 21개월이 된 '솔메'라는 딸을 키우고 있다.

흔히들 자식은 품안의 자식이고 그중에서도 아장아장 걸음마 배우고 이것저것 말 배울 때가 제일 이쁘다 한다. 그리고 자식 키우는 맛은 아들보다 딸이 낫다고들 한다. 또 애들을 둘 이상 가진 엄마들 표현을 빌면 애는 하나였을 때 재미있고 둘이 되면 그때부터 정신 없게지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애 키우는데 제일 재미있을 때에 해당되나 보다. 애도 하나고 게다가 딸이고 더구나 이제 막 사물이름들을 익히기하면서 쉬운 단어는 2개씩 붙이기도 하는게 여간 신통해되지 않는 요즘이니까.

정말이지 목도 못가누고 누워서 젖빠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못하던 것이 점점 자라서 변하고 사람모양 갖추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으로 즐겁고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한다.

내 기억에 의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깨물고 싶도록 이쁘다거나 살가운 정이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좀 신기하고 낯설고 긴장되는 뭐 그런 상태에 가까웠던 듯 싶다.

진통이라는 과정을 겪은 다음이라서 그랬을까. 사실 진통의 기억도 좀 우습다. 죽을 것만 같도록 공포스럽던 와중에서도 그 진통이 잠깐씩 멈추는 사이사이에 나는 정신없이 잠으로 떨어졌다. 전날 밤부터 한숨도 못붙이고 시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잠이 쏟아지고 정신을 놓는 건 난생 처음이었고 졸면서도 스스로가 잘 납득이 안됐다. 진통때문에 빠졌던 잠에서 깨는 순간 애 낳는 걸 한숨 쏘고 자고 난 뒤로 미루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푼수'란 뜻이 원래 애 낳다가 조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라던 학생시절 우스개소리가 생각났지만 뭐 아무래도 좋았다. 그리고 그렇게 주체할 수 없도록 파고들던 줄음은 아기가 뱃속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나가 둘이 되고 모든게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손가락 발가락이 열개씩 제대로 달렸는지 눈코입은 제자리에 잘 붙었는지 숨은 잘 쉬고 건강한지 그런게 궁금했는데 엉뚱하게 내 입은 "뭐예요?"라고 아기의 성별을 묻고 있었다. 간호원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금방 태어난 그 특유의 살빛깔을 한 아기를 거꾸로 들고 내 옆을 지나가더니 씻기고 있었고 숨 넘어가듯 울어제끼는 아기소리만 까락까락 들리고 있었다. 나는 한편으로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했다. 상황을 짐작해보건대 내가 딸을 낳았고 아기는 별 문제없이 건강하다는 애긴데 딸이라 대답할 가치조차 못 느껴하는 듯한 간호원 태도가 내 비위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딸이 어째서? 자기는 고추 달린 여자라고 된단 말인가. 시이모님이 두번씩이나 재촉해서 묻자 "딸이에요." 마치 자기가 면목없는 머느리라든가 풀기없는 소리로 대답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딸이 출발하는 인생의 첫무대는 아직 그렇게 편견이 도사리고 있었다.

옆에 누워서 두 눈을 야무지게 뜨고 주위를 살피는 딸을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신기함이란...

아기는 태어나서 만 이틀동안 뱃속에 든 곱을 다 토해낼 때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으므로 사실 나는 움직일 일이 없었는데 웬일인지 잠이 오질 않았다. 토해내느라 괴로운지 자꾸 울어대는 아이와 함께 밤을 세웠다. 딸 아이는 몹시 예민했다. 배고픔, 젖은 기저귀 이외의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 울어댔고 그때마다 대책이 없었다. 안고 먹여보고 달래

수없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부딪치면서도
무엇이든 잡고 일어선 그 모습이 그렇게
진지해보일 수가... 그때 나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엄마도 함께 느끼고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보는 것 말고는. 심하게 울 때는 얼굴이 흙빛으로 되고 그럴 때는 숨도 안 쉬는 듯 했다. 아마 내가 임신했을 때가 남편과 그동안 서로 다른 생활방식,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미혼시절을 극복하고 적응해내느라 몸살을 앓는 신혼때여서 몹시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던 까닭에 뱃속에서 그 영향을 받은 걸로 밖에 해석이 안됐다. 갓난 아기 적에는 먹고 자고 싸는 일이 전부여서 잘 먹고 잘 자야 건강하게 빨리 크는 거라고 어른들이 말했지만 딸 아이는 잘 안먹고 잘 안자다. 우는 건 아주 잘했다. 나는 그게 내 탓인듯 싶어서 힘들면서도 미안했다.

그래도 아이는 울고 신경질 부리면서 조금씩 변해갔다. 누워서 개구리 헤엄치듯 다리를 허위적거리며 위로 올라가곤 하더니 목을 가누고 몸을 뒤집고 기어가는가 싶더니 어느날 짚고 일어서고 보행기에 의지해서 옮겨다닐 수도 있게 되었다. 기지개 천답시고 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도록 힘을 주고 팔다리를 부르르 뻗던 모습이라니. 팔을 아무리 뻗어도 팔길이는 머리길이보다 짧은 듯 했다. 그러더니 주먹 뻗은 손 끝이 머리 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수없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부딪치면서도 무엇이든 잡고 일어선기 시작하는데 지치지 않았다. 그 모습이 그렇게 진지해보일 수가 없었고 나는 아이의 분투를 지켜보면서 감동하고 깨달았다. 그때 나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엄마도 함께 느끼고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한걸음을 확실히 내딛은 다음부터 아이는 표정이 달라졌고 두려웠던 세상에 대해 자신감이 생긴듯 당당해지더니 일주일만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변화였다.

누워있을 때부터 애기를 많이 해줘서인지 는 알 수 없지만 신경질이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잘 안자고 잘 안먹고 예민한 편이긴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온 장난감과 책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줄 알게 되었다. 책을 좋아해서 무릎에 앉히고 읽어주면 아주 압전해졌다. 가끔 아기곰 인형을 얹혀놓고 무얼 웅얼거리면서 책 읽어주는 시늉도 할 정도로.

차츰 사람말을 알아듣고 따라하고 엄마 아빠에서 아기, 물, 아니 등으로 늘어나더니 할머니(할머니)란 세음절을 발음한 다음부터 2단어를 연결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어휘력도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은 통역이 필요한 정도의 발음이라서 아비(바지), 부아(모자), 우하(수박), 아이크(아이스크림), 배배(배개), 우우(우유), 이이(오이), 아옴바(아줌마), 시애(시계) 정도지만 혀가 잘 안돌아가는데도 걸음마 배울 때처럼 열심으로 입을 건물거리며 따라하는 모습은 정말 신통하고 예쁘다.

남편이 나가고 들어올 때면 '아빠 안네'하고 조막손을 펴 흔든 다음 문 앞에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정중한 인사도 곁들인다. 이제는 과일이나 과자를 담아내놓으면 엄마 아빠에게 먼저 집어 건넬줄도 알고, 하면 안되는 것, 해도 되는 것을 알아서 아주 지금은 자제할 줄도 안다. 물장난이나 대문이 열렸을 때 혼자 바깥에 나가는 것 등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억제하기가 힘든 모양이지만, 화장실에 도착할 때까지 쉬나 용아를 참는 점도,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 내키지 않는 한두가지 것을 먼저 하는 것, 옆방(주인집)에 놀러가고 싶은데 그 집 종훈이가 자고 있거나 없을 때는 그 방에 안들어가는 것 등은 한마디 얘기해주는 걸로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뿐인가. 독립심이 생겨서 이젠 무엇이든 혼자 하려고 덤빈다. 세수, 양치질, 옷 갈아입는 것, 신발 신는 것 등. 요즈음 한 술 더 떠서 나나 내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일일이 끼어서 한 몫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하는 일이 방해받고 가끔 짜증도 솟지만 나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함께 웃고 울고 아파하면서 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부

모란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부모로서의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하는 고달픈 자리이고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 대해 더욱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이 깊고 풍부한 감성을 기르게 된다는 점에서, 생활의 활력과 또다른 재미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또한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할 때까지 믿음과 애정이 부족하고 모성이 결핍된게 아닌가 싶어 한동안 우울하고 자책감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린 결론이었다. 아이는 나를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게 하지만 자라고, 변하고, 재롱 부리는 것들로 이미 내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 일인가.

그러나 이 보람있고 즐거운 육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가리워서 잘 보이지 않는 엄마 자신의 문제가 있다. 육아의 행복에 빠져 있는 '엄마' 자리 뒷편에 지치고 도태감을 느끼는 '나'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누워있으면 누워있는대로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손발이 되어야 하고 기어다니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모든게 위험인지라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걸어나가고 말 배우기 시작하면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엉덩이 붙일 잠이 없고 심지어 배고픔이나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도 아기의 생리적 욕구에 맞추어 양보하거나 조절해야 하다보니 엄마는 엄마 되기 이전의 생활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

애키우는 엄마가 자기 시간 갖는게 현실적으로 가당키나 할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애키우면서 힘든 건 엄마의 당연한 몫이라 여기고 육아가 엄마의 가치있는 수고로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아이가 제대로 걷고, 말하고, 제 힘으로 옷 입고, 밥도 먹을 수 있게 되기까지의 신체발달과 생활습관, 사고, 정서들이 엄마와 뗄 수 없는 깊은 밀착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데도 그 엄마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육아의 행복에 빠져 있는 '엄마' 자리
뒷편에 지치고 도태감을 느끼는 '나'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까?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엄마라는게 무슨 대단한 벼슬인양 유세하려 드는 걸로 치부한다. 여차하면 누구나 엄마가 되고 애 키우는 고생을 하는 법이거늘 무어 그리 법석을 떠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감히, 애놓고 기르는 일도 아주 특별하고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애키우는 수고와 가치로움에 대해 백화점 세일처럼 맞춰보고 당연히 하는 경향들에 반대한다. 그것은 당시 육체적인 노동을 강조함에서가 아니라 육아의 가치와 보람이 엄마의 중요한 한 부분의 희생을 한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당연하고 자연스런 엄마노릇 하느라고 자신의 삶과 생활에 대해 되짚어볼 수 있는 여유와 뭔가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몽땅 반납하고도 그 희생과 헌신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되면서 느끼는 새로운 즐거움, 행복과 동시에 자신이 이 시기동안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나'의 상실감. 사회인으로서의 도태감,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나 자신에의 갈증을 겪는 것은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나만 더 유독 힘들다고 여겨질 때도 물론 있다. 가게부 쓰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따라다니는 아이를 따돌리면서 시장 본 액수를 적는 것조차 힘든 나로서는 신문보고 책 읽는 여유쯤은 꿈일 수밖에. 노골적으로 힘든 내색을 보이면 남편은 나더러 무조건 쉬란다. 아이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이것저것 시도하지만 집안 일이 쌓여있어서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더 힘들어질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맘 편히 쉬는게 가능이나 한가. 남편성격이라면 혹시 모른다. 머리가 땅에 닿기만 하면 2분 이내 코까지 고는 아주 편리한 체질이니까. 그래도 자상한 편이어서 시장도 봐오고 몹시 힘

들 땀 애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육체적인 피곤에만 있지 않음을, 오히려 정신적 고갈에서 오는 통증이라는 것을 남편이 온전히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아마 아이가 돌 전후했을 즈음이 가장 힘들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때는 애 키우는 것이 소모전이란 느낌이 들었다. 하루에 두어시간 만쯤이라도 엄마가 아이에게 신경 곤두세우지 않고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살았다. 엄마의 시간적 여유와 재충전은 아이에게도 바람직하고(훨씬 온화한 감정, 높은 질의 양육이 가능하니까) 엄마에게도 필요하다. 아이는 물론 낮 익고 편안한 손길이 필요하지만 엄마에게도 시간은 필요하다.

아이에게 빠져서 힘들다는 느낌 이외엔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조차 없다가 어느날 문득 사회적으로 무반응하고 먹통으로 변해버린 듯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당혹스러움은 자신을 몹시 슬프게도 한다.

애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뉘두리했을 때 누구나 치러내는 엄마의 역할에 대한 내 개별적 능력미달쯤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나는 좀 억울하고 서운함을 느낀다.

우리의 육아가 엄마에게 모두 짐지워진 채 엄마의 고통쯤 일시적인 수고 정도로 여겨지는 것은 육아의 소중함과 가치로움을 가버리 여기고 엄마의 삶을 그 자체만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는 인간이라는 가장 귀한 생명을 키우면서 왜 스스로 비하감, 도태감을 느껴야 하는가. 나는, 모든 엄마들이 자식을 소중하게 키우면서도 자기 자신 또한 성취감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싶다. 너무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인가? 그러나 나는 이런 얘기들을 누구에게나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이 지면이 이렇게 황설수설 늘어놓아도 되는지 좀 불안하지만 기회가 와서 기뻐다.

나는 가끔 옛날의 대가족제도를 떠올린다. 아이들은 옛날처럼 엄마 아빠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들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크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이다. 시작하

'엄마'는 인간이라는 가장 귀한 생명을
키우면서 왜 스스로 비하감, 도태감을
느껴야 하는가... 모든 엄마들이 자식을
소중하게 키우면서도 자기 자신 또한
성취감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싶다.

는 어린 생명은 황혼에 이른 할머니, 할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살아온 날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린 나이드신 어른들도 나무처럼 자라는 어린 생명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곤 한다. 그것도 거칠어진 우리의 가슴들을 치료해 줄 것이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힘을 가지게 되리라 믿는다.

그런 사회가 되면 엄마들도 자유로와질 수 있을까?

* * * * *

늙은 학생의 하루

신현희 / 양성교육 과정

“탁탁탁, 혁혁”

숨이 턱에 차서 계단을 오르지만 오늘도 문은 닫혔고 이미 강의는 시작되었다. 매일 이렇게 저녁시간을 보낸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처음 등록을 하고는 몸이 건강치 못한 내가 저녁에 공부를 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 내심 걱정을 했지만 한달정도를 지나면서는 적응이 되니까 힘드는 지도 모르고 재미있게 다니고 있다.

내가 보육활동을 처음 시작하던 때가 생각

내가 보육활동을 처음 시작하던 그 때에는
자격증이니 아동교육철학이니 하는 것들은
배부른 자의 독백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복지사업으로 보육사업이 자리를
잡고, 보육교사 또한 전문인으로서 요구받는
시대가 되었다.

난다. 그 시기는 보육공간 자체가 없었던 때라
자격증이 어떻고 아동교육 철학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배부른 자의 독백에 불과했었다. 그래서
전공자가 아닌 나 또한 아동에 대한 명확한
교육철학을 갖고 시작했다기 보다는 여성문제
에 대한 시각 속에서 아이를 사랑한다는 하나
의 신념으로 시작하였고, 그후 여러 교육을 받
으면서 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복지사업으로 보육사
업이 자리를 잡고, 보육교사 또한 전문인으로
요구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나도 전문인
으로서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양성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 받으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교육했나를
반성하게 된다. 이것이 교육받으며 얻은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내게 새로운
활력과 보육교사로서의 신념을 줌에도 불구하
고 그 속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발견
하게 된다.

오늘 1강의는 「율동 및 노래지도」다.

교수님께서 율동에 뛰어난 감각을 갖고 계
신 듯하다. 자기가 생각하는 율동을 해보고,
다함께 하나의 창작율동을 만들고, 다른 반에
서 나온 율동의 예를 소개해 주시는-하나의 노
래와 율동을 배우면서 직접 해보는 기회와 다
른 반에서 창작한 것을 함께 배우니 일석이조
가 아닌가?

그런데 새 노래를 배우면서 문제가 생겼
다. 열심히 부르고 율동까지 하는데 이것은 노
래가사와 가르쳐 주시는 율동이 내가 생각하는
아동교육관과 다르다.

노래 제목 <어른되면>

내가 커서 어른되면 어떻게 될까?
아빠처럼 넥타이 매고 있을까?
엄마처럼 행주치마 입고 있을까?
랄라라 다같이 흉내내보자.
나는 엄마 나도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호호,
나는 아빠 나도 아빠 여보 여보 다녀왔소.

우리가 교육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종일반이라 하루종일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게
되는 아이들로 맞벌이부부의 자녀인데 어떻게
엄마는 행주치마 입고 아빠 출근하실 때 인사
나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린이집에 있
을 때 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가정의
아침은 아수라장이다. 엄마는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는 아빠가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깨워
씻기고 옷을 입히는 등 너무 바쁘다. 그나마
아빠가 함께 도와주는 집이라도 엄마가 행주치
마 입고 아빠 출근하실 때 인사나 하고 있을
시간은 도저히 없다. 물론 이 노래는 일반적
사회모습을 애기한 것이겠지만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 노래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치
고 있다니 너무 실망스럽다. 그동안 성평등(남
녀평등)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좀더
세심한 준비로 노래선곡에서 부터 아니 노래선
곡을 하셨더라도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개사를
해서라도 교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아동교
육관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밤의 내 일기장에는 나의 아동교육관
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보아야겠다.



■ 좋은 그림책 소개

😊 신나는 페인트칠

글, 그림 H.A.레이 / 이선아 옮김 / 네버랜드 / 5,000원

어느날 호기심 많은 개구장이 원숭이 조지는 몰래 동물원을 빠져나옵니다.

마냥 신기한 세상 구경을 하던 끝에 원숭이 조지는 유리창 닦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호기심을 참고 창을 닦던 조지는, 어느 방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 아저씨들을 보게 됩니
다. 다시 호기심이 발동한 조지, 아저씨들이 나간 사이 그 방에 들어가 페인트칠을 해서
온통 정글숲을 만들어버립니다. 나갔다가 방에 돌아온 아저씨들을 피해 조지는 도망가다
건물에서 떨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 일로 조지의 친구인 노란 모자 아저씨를 만
나게 돼서 영화에까지 출연하게 됩니다.

세권의 시리즈물 중 하나인 이 그림책은 그림으로도 이야기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
림책입니다. 만화풍의 간결한 그림에는 여기저기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말썽을 일으키지만 미워할 수 없는 원숭이 조지의 모습은 개구장이 어린이의 모
습 그 자체입니다.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이 그림책을 본다면 정말 신나할 것입니다.

(5세 이상)



책 크기/209×270mm · 면수 ① 64면 ② ③ 56면 · 본문종이/모조지150g
재본/하드커버 · 값 각권 5,000원

■ 소식과 소식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개소식 지휘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육관련 내용을 통신 서비스로 제공하는 한국보육정보연구소(소장 서정은)이 6월 24일(토) 드디어 개소식을 했다.

이날 한국보육정보연구소가 자리한 엠버서 더호텔 옆 대학문화원 구내식당을 빌어 마련된 개소식에는 최현숙 본 회 회장을 비롯, 임혜숙, 김경태 전 회장과 장미경 보육정보연구소 고문(본 회 정책연구부장), 통신서비스 상담을 맡게 된 황병순 교수, 본 회 소속 교사들 등이 함께 참석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소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이날 정보연구소 소장 서정은씨는 “바람직한 보육사업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개소식 소감검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며 앞으로 많이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보연구소에서는 7월 초경 천리안에 이어 하이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막바지 정리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 지자체 선거 앞두고 민보련 지역별 교육 진행

6월 27일 4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각 보육단체별로 여러 곳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였다.

안양시 민보련(회장 조남일)에서는 이기우 교수, 이명숙 인천민보련 회장 등을 초청해 지방자치에 관련한 조례제정과 예산확보에 대한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인천시 민보련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마련 본 연합회 최현숙 회장이 강사로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보육계의 지방자치에 대한 높은 관심은 보육지침에서 보육관련 조례제정과 행정단위별로 자체적 지원의 가능성 제시 등을 통해 이미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보육사업을 올바르게 활발하게 벌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한편 6.27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회장 한숙희)와 본 회에서는 서울시장선거 후보자들에게 현시기 요구되는 보육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6월 4일 일일호프 성황리에 마쳐

이른 아침부터 많은 교사들의 도움과 참여로 활기차게 시작한 일일호프가 전현직 지탁연식구들과 그외 아는 이들의 발걸음으로 북적거리며 무사히 성황리에 일일호프를 마쳤다.

부산과 군산에서는 지역을 대표하여 몇몇 교사가 일일호프에 참석하여 서울 경인지역의 교사들의 합성을 받기도 하였다.

이날 신문광고나 연락을 받고 전직 교사들이 참석하기도 하여 오랜만에 서로의 소식을 교환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그간의 지탁연 활동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활동에 대한 제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일일호프의 수익금은 미회수금이 있는 관계로 아직 정산이 되지 못하였으나 조만간에 지역대표자회의를 통해 보고할 계획이다.

■ 탁아계 풍향

● PC통신 육아상담원 모집

한국보육정보연구소(소장 서정은)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천리안 및 7월 초 개시 예정인 하이텔에 제공하는 메뉴 중 ‘물어보고 싶어요’와 ‘육아토론실’을 담당할 상담원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담자격 : ■ 교육현장의 역량있는 원장, 교사

■ 아동교육 관련 교육, 연구자,

■ 영유아 전문 소아과 의사, 영양사 등 관련자

■ 문제아동상담 및 개별 상담 유경험자

■ 보육행정가

■ 각 분야 4년 이상 경력 소유자

신청서류 : 이력서 1부(사진 포함)

모집기간 : 천리안 95.6.30까지

하이텔 95.7.30까지

문의전화 : (02)268-3954, 271-1547~8

● 원아동미술교육연구소

교사연수 프로그램

원아동미술교육연구소에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동 창의성 개발을 위한 통합적 아동미술교육에 관심있는 현장 교사들의 참여 바란다.

<단기 교사강습>

일 시 : 7월 24일(월) - 7월 28일(금)

7월 31일(월) - 8월 4일(금)

8월 7일(월) - 8월 11일(금)

교육시간 : 09:00 - 15:00

모집인원 : 20명 정원 1반

연 수 비 : 20만원

<장기 교사강습>

일 시 : 95년 8월 28일 - 96년 2월 24일

매주 토요일 6개월간 25주

(운영자반은 30주 강의)

교육시간 : 토요A반(10:00-12:30)

토요B반(14:00-16:30)

토요C반(18:00-20:30)

화요D반(18:00-20:30)

금요E반(18:00-20:30)

모집인원 : 교사반 20명 정원 3반

운영자반 20명 정원 1반

특별반 20명 정원 1반

연 수 비 : 교사반 40만원 6개월 선납

운영자반 50만원 6개월 선납

(재료비는 월 2만원 수준 별도)

접수기간 : 8월 1일-8월 30일(반선택은 선착순)

접 수 : 동화은행 225-03-042448 손흥민

대동은행 340-02-034149 손흥민

(예비소집일에 온라인 입금표와 수강증, 교재 교환)

예비소집일 : 8월 26일 11:00

장 소 : 원아동미술교육연구소

문의전화 : (02)585-9110, 586-8295, 597-1593

(원아동미술교육연구소)

● 여성의 눈으로 문학 읽기를 위한

문학강좌

여성문화예술기획에서는 여성주의 문화운동차원에서 열린 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이 강좌들을 통해 문화이론과 영화, 소설 등의 분석, 문화예술분야로 진출하려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취업정보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장 소 : 여성문화예술기획 강의실

신 청 : 주택은행 525225-95-100936 김영선

문 의 : 여성문화예술기획(762-6048)

강의종류 :

<여성취업을 위한 문화현장교실>

- 7월 7일~9월 22일(매주 금 17:00-19:00)

- 참가비 12만원(신입회원 가입비 1만원 별도)

<여성문학론1 - 8,90년대 여성작가 읽기>

- 7월 3일~9월 25일(매주 월 19:00-21:00)

- 참가비 10만원(신입회원 가입비 1만원 별도)

<문화정치학 - 페미니즘의 지평에 서서>
- 7월 6일~8월 31일(매주 목 19:00~21:00)
- 참가비 8만원(신입회원 가입비 1만원 별도)

●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 공연

공연일시: 5월 30일~7월 23일
평일/ 11시, 2시
주말,공휴일/ 12시 30분, 2시
(월요일 공연없음)

공연장소: 바탕골 소극장

공연문의: (02)745-0745

● 어린이뮤지컬 연극 [강릉로봇과 봉숭아
요정]공연

극단 [친구들]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연극
[강릉로봇과 봉숭아요정]을 공연한다.

일 시 : 7월 5일~7월 8일(4일간)

공연시간 : 11시(단체), 2시, 4시

장 소 : 인천시민회관 대극장

관 람 료 : 1인 5,000원.

20명이상 단체관람시 3,000원

공연문의 : 인천시민회관(032)875-3760

단체문의 사무실(02)698-2643~4

특 전 : 단체 50명 이상시 버스 1대 제공

● 개인 및 가족상담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에서는 매주 평일 오
전 9시 - 오후 5시에 가정상담, 청소년상담, 정
신건강상담, 결혼준비상담 등을 진행한다.

문의(02)360-2579.

● 여름맞이 양재특강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7월 4일~8월 1
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아동복, 커튼,
여성용 비치기운 등의 양재특강을 마련한다.
수강료 5만원. (02)752-4227

● 법정평등모임 회원모집

(사)한국여성의 전화는 오는 7월 6일까지

여성인권운동에 관심있는 대학 법학과 재학생
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법정평등 실현을 위한
모임](가칭) 회원을 모집한다. 선발된 사람들은
변호사들의 강의를 받은 뒤 가사재판 모니터,
탄원서 작성등 피해자들 지원활동에 나서게 된
다. (02)269-2962

● 성남지역 무료 여성대학

성남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여성
대학이 7월 4~7일 오전 9시 반에 성남시 서울
보건전문대학 1동 시청각실에서 있다. 내용은
한국의 전통음료, 영어 조기교육 등. 교육기간
중 임시놀이방 운영. 문의 (0343)40-7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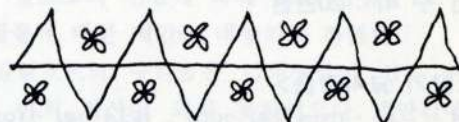
● 지매노인 탁노소 운영

북부노인복지관은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치매(노망)증상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
상으로 탁노소를 운영한다. 이용시간은 월~금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료는 일일
5천원이다. (02)948-1637

● 의료보험 체험수기 공모

의료보험연합회(회장 윤성태)는 전국민의료
보험 시행 6주년을 맞아 18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4회 '의료보험체험수기'를 공모한
다.

원고마감은 7월 20일로 의료보험연합회 교
육홍보부에 2백자 원고지 30매 안팎으로 작성
제출하면 된다. (02)705-6244



■ 베품시장

* 베품시장에서는 여러분이 양리고 싶은 양이나 함께 하고 싶은 모임, 뭉뚱교한
등 여러분의 각종 정보를 본양라 내용에 관계없이 받고 있습니다. 정보를 주시고
자 하는 분은 지체없이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구합니다. 본 회 소속 어린이집에서 활기찬 보육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욕찬 교사를 구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본 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아끼는 게 별건가요? 농촌에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재정이 안정되면 그것도 농촌을 지키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첫술 어때요? 농촌탁아소 재정마련을 위한 첫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질 보장에, 가격은 한셋트(4개입)에 2,500원입니다. 대금미납하신 분들은 속히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좋은 사람 하나 없을까요? 아무런 기다려도 연락이 없네요. 우리가 그토록 인기 없는 줄이야... 어린이집 협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잘 해드려주세요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덕분에 우리 편집부도 힘든 한번 해보자구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지역보육운동, 아직도 못보셨다구요? 일본 보육운동의 산 증인 스즈키 쇼조 선생님의 교육관을 놀이, 가정, 지역, 인권 등의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필독서! 더 늦기 전에 구입하세요. 문의는 연합회로. 판매가 : 5,000원	
와주서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난 6월 4일 지탁연에서 마련한 일일호프에 너무도 많이들 와주셔서 저희는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그날 일일호프를 도와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멀리 부산, 군산에서 부터 와주신 선생님들, 후배들의 행사에 자리를 빛내주신 선배님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 지탁연 사무국 일동 -	머리 뭉, 글 뭉 “우리네 아이들”을 채워줄 귀한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보고 느끼신 거나 보육활동을 하면서 제기되는 생각들, 기타 모든 내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직접 글로 써주시면야 더없이 고맙지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그림책 우편판매!! “우리네 아이들”에서 소개되는 좋은 그림책을 판매합니다. 판매가는 할인되지 않지만, 신청하신 회원들(자료회원 포함)께는 무료발송을 해드립니다. 5,6월호 소개작자: 신나는 페인트칠 까막나라에서 온 삼사리 빨간 뽕선의 모험 기타 이전에 소식지에서 소개되었던 그림책도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오윤정 교육부장
● 자원활동가 여름합숙 또 일을 벌였습니다. 자원활동가 합숙이 갑혔습니다. 날짜는 8월 12-13(금, 토)일, 장소는 새터! 7월 정기회의는 합숙준비모임으로 갑혔습니다. 일시: 7월 31일(월) 오후 4:30 장소 : 황미혜 간사가 사는 곳 꼭 참석 바랍니다!!! (지력제공)		
보육사업 하려면 이 책쯤은 읽어야...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 아동보육사업의 경영경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 체계적으로 수록한 [영유아총서 :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 (이석무 저, 해화당, 정가 11,000원)]을 정가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희망자는 본 연합회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구입을 하면 됩니다. 판매가 : 10,000원(외부) 9,000원(내부, 자료회원)		

■ 편집부에서

* 6월호가 다소 얇게 나왔습니다.

지난 5월호는 너무나 두꺼워서 다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상대적으로 6월호가 알뜰하게 느껴질 거 같아서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네요.

이번 6월호는 예전보다 원고분량이 많지 않아서 아마도 여러분도 조금은 섭섭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7월호를 기대해주세요.

* 정책연구부의 연재글은 다음호에 실립니다.

글쓰시는 분의 사정으로 정책연구부에서 연재하던 탁아비용연구는 7월호부터 다시 실립니다.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 편집부 활동을 그만 두셨습니다.

편집부로도 활동하시던 정희연 부회장님이 영국연수 준비를 위해 편집부활동을 쉬시게 되었습니다.

넉넉한 품과 밝은 웃음소리가 아쉽지만 그래도 영국가서 제대로 연수를 받아오기를 바라는 만큼 정희연 부회장의 몫까지 남은 이들이 맘홀리리라 다짐을 합니다.

글쎄요, 가뜰이나 더운 여름에 맘을 얼마나 더 홀려야하는 건지...

참,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요, 편집부에서 우리랑 맘 홀릴 사람 아무도 없는 건가요? 아주 잘해줄 건데...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김영선(재구독), 이정수, 이상희(양덕보육센터)님의 "우리네 아이들" 구독료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 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회비를 받았습니다.

민연식님께서 새로이 저희 연합회에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새기며 알차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 회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내용을 받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후기를 쓸 때

내 이야기도 유치해져야 한다.

온통 쏟아놓은 뒤 둘러볼 여유없이

한방울의 땀으로 그렇게

유치해져야 할텐데

혜민

건들바람, 산들바람, 넘실바람.....

요사이 부는 바람의 이름이란다.

한낮의 더위에 흐르는 땀을 훔치면서도

아직은, 쾌청한 하늘 올려다 보며

푹푹한 바람이 시원스런 6월이다.

양

미혜의 세가지 바람.

1. 칙칙한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를 가는 것

2. 여름 교사연수가 잘되는 것

3. 회원언니의 몫을 대신할 누군가가 오기를

바라는 것....

혜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의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앞
☎ 275-8505~6

송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외/탁/아/스/연/협/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우)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펴낸이: 최현숙
몸은이: 정희연, 변미양, 주혜민, 황미혜
펴낸날: 1995년 6월 28일

판매가 : 3,000원